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만전

전주시,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상황실 운영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 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용삼)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동파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상향실장으로 총 4개 반 8명으로 구성된 동파상황실을 꾸리고, 휴일과 주·야간 구분 없이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30개 △100개 이하 △100개 초과 등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인력 및 교체공사 시공업체와 함께 동파된 계량기에

대한 신속한 교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기온 급강하(영하 7℃ 이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존에 동파 사고가 발생했던 취약 세대와 각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동파 예방 안내문도 문자메시지(SMS)로 발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동파 예방요령 안내 전단지 3만 매와 보온용 비닐 덮개 3만 매를 제작해 아파트 관

리사무소와 검침원 등을 통해 배부·설치하고 있다.

김용삼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단수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량기 함 내 현 옷이나 에어캡 등을 채워 보온하고,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거나 보온을 하더라도 동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놓고 수도물이 흐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달라"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시 신속한 교체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8일 전주시를 찾아 '온기 나누는 난방매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카본 난방매트 15개를 전달했다.

온기 나누는 난방매트 지원

전북대병원, 기탁... 긴급임시거처 입주자 15가구에 제공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28일 전주시를 찾아 '온기 나누는 난방매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카본 난방매트 15개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병원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으로 모은 '작은 나눔, 큰 행복' 후원금을 통해 진행된 '사랑+나눔'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됐다.

이날 후원한 카본 난방매트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긴급임시거처 순환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2일에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주거취약 가구 6곳을 찾아 방역 및 소독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꾸준한 봉사과 나눔을 실천해왔다.

양종철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이날 "겨울철,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병원이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어려운 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동참

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200만원 기부

전북지역에서 활동중인 공인회계사들이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엄상섭)는 28일 전북지역 회계종사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데메이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및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며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성금 1200만원을 기부했다.

매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며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성금 1200만원을 기부했다.

매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며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성금 1200만원을 기부했다.

엄상섭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2만 8000여 회원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전문직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하며,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엄상섭 회장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기부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전주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온정 나눔에 관심 있는 많은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는 28일 전북지역 회계종사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데메이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및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전주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며 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200만 원을 기부했다.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 효자3동 지사협, 독거 남자어르신 대상 요리교실 진행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동장 오현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명호)에서는 관내 독거 남자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나도 이제는 요리사' 요리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나도 이제는 요리사' 요리교실은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하반기 행복동네만들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따뜻한 집밥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손질과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이다.

요리교실은 협의체 위원과 어르신 1명씩 한조를 이루어 지난 10월 8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매 회차 마다 돼지고기 카레, 베이컨감자채볶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관내 독거 남자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나도 이제는 요리사' 요리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음, 멸치볶음 등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두 가지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가정에서 드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요리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주었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요리법을 배우고, 집에서 계속 요리를 시도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현순 효자3동장은 "2달 동안 요리교실에 참석해주신 최춘경 강사님을 비롯하여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협의체 위원분들과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어르신들이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한파 대비 출동차량 일제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겨울철을 한파를 대비해 출동차량 일제점검 및 현장대원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동차량 총 33대에 대해 PTO 작동상태(자동, 수동) 및 제동장치(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등), 각종 오일 주입량, 부동액 주입량 누수 여부, 겨울철 월동장구 적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장대원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으로 △소방차량 빙판길 사고 예방 교육 △고도를 제거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전파 △개인 안전장비 이상 유무 확인 △안전장비 작동 요령 숙달 △고충건물 고도를 낮추려 및 안전사고 방지훈련 등 진행했다.

특히 1년 미만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결빙으로 인한 빙판길 안전사고 방



지교육도 병행했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